



유럽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중앙은행(ECB)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음.

- 8월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선언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금융시장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지연, 스페인 은행권 부실 규모 확대 가능성, 그리스의 긴축 실사 결과 등에 따라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커짐.

■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시기가 유로존의 향방을 가늠할 최대 변수로 대두됨.

-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신청이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짐.
 -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(10년 만기)는 ECB의 국채 매입 구상이 공개된 이후 안정되었으나 9월 26일에는 각각 5.98%, 5.17%까지 상승함.
- 스페인은 국채금리 안정, 추가 재정지출 삭감 협상, 내부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에 소극적임.
 - ECB 국채매입 계획으로 일주일 전까지 국채금리가 5%대 중반에서 안정세를 보였음.
 - 스페인은 재정지출 삭감, 세금 인상, 연금 동결, 은퇴연령 조정(65세 → 67세)에도 불구하고 전면 구제금융 신청 시 추가적인 재정긴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구제금융 신청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커졌음.
 - 자치정부의 독립 요구로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¹⁾이 높아졌으며 추가 재정긴축을 수용하더라도 재정긴축 저항이 확산되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이탈리아와 동시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협상력을 높하려 하고 있으나 최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여 협상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함.

1) 스페인 전체 GDP의 19%를 차지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재정독립 요구로 재정절벽 가능성이 커졌음.

■ 유로존은 스페인 은행에 최대 1,0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7월 합의하였으나 스페인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구제금융 규모가 커질 수 있음.

- 스페인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9월 28일 발표할 예정
- 전문가들은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7월 현재 1,693억 유로에 달해 추가로 200억~3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
 - 스페인 은행의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역내은행이 동반 부실화하고 결국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.
- Wall Street Journal은 스페인에 대한 위험노출(risk exposure)이 가장 큰 독일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
 - 독일 은행들이 스페인 금융권에 투자한 자금은 1,399억 달러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에 집중되어 있음.

■ 10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IMF, 유럽연합(EU), ECB의 그리스 긴축 실사 결과도 주요 변수임.

- 그리스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31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음.
 - 그리스 재정은 11월 중 고갈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1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 확정을 둘러싼 그리스 정치권의 내분과 두 차례에 걸친 구제금융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됨.

(Financial Times, Wall Street Journal 등, 9/24, 9/25)